SAMPLE REPORT

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4종, 지역마다 1위가 다르다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개한 전국 상가업소 자료(2026-09-30 기준)로 만든 샘플입니다. 의뢰 건이 아니라 자체 조사이며, 실제 납품 리포트와 같은 구성(핵심 요약, 시장 현황, 비교표, 지역 분포, 시사점, 출처와 한계)으로 되어 있습니다.

조사 질문

카페 창업이나 출점을 검토하는 팀 입장에서, 저가 커피 4개 브랜드는 어느 지역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. 전국 합계만 보면 놓치는 것은 무엇인가.

핵심 요약

- **4개 브랜드가 전국 카페의 8.7%다.** 전국 카페 119,065곳 중 10,395곳이 메가MGC커피, 컴포즈커피, 빽다방, 더벤티다.
- **전국 1위와 지역 1위는 다르다.** 전국 점포 수는 메가MGC커피(4,263곳)가 가장 많지만, 경남, 부산, 울산은 컴포즈커피, 전북, 대전, 제주, 세종은 빽다방, 경북은 더벤티가 가장 많다.
- **서로 가까이 붙어 있다.** 4개 브랜드 점포의 43.4%는 100m 안에 4개 브랜드 중 다른 브랜드의 점포가 있다.

119,065곳
전국 카페 (자료의 카페 업종)

10,395곳
4개 브랜드 점포

9/30
자료 기준일 (2026년)

조사 범위와 방법

항목	내용
조사 대상	메가MGC커피, 컴포즈커피, 빽다방, 더벤티 (전국)
자료	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(상권)정보, 전국 상가업소 2,753,778곳
기준 시점	2026-09-30 기준 자료, 2026-11-11 내려받음
판별 방법	업종이 카페인 업소 중 상호명에 브랜드 이름이 들어 있는 곳
핵심 지표	브랜드별 점포 수, 지역별 비중, 100m 안 다른 브랜드 점포 유무

01 시장 현황

4개 브랜드 한눈에 비교

점포 수만 보면 순위가 분명하지만, 어디에 몰려 있는지를 함께 보면 브랜드마다 성격이 다릅니다.

브랜드	점포 수	전국 카페 대비	진출 시군구	수도권 비중	점포가 가장 많은 시군구
메가MGC커피	**4,263**	**3.6%**	**246곳**	**65.4%**	**서울특별시 강남구 (84곳)**
컴포즈커피	3,037	2.6%	238곳	50.3%	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(57곳)
빽다방	1,794	1.5%	228곳	53.2%	대전광역시 서구 (42곳)
더벤티	1,301	1.1%	215곳	41.2%	경상북도 구미시 (38곳)

기준: 2026-09-30. 진출 시군구는 카페가 있는 전국 256개 시군구 중 그 브랜드 점포가 1곳 이상 있는 곳입니다. 수도권은 서울, 경기, 인천입니다.

해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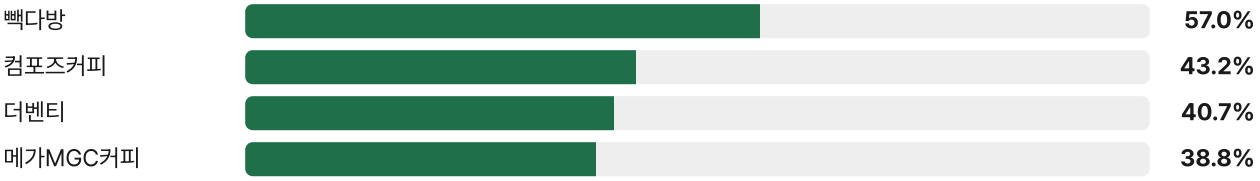
수도권 쏠림이 브랜드마다 다르다

전국 카페의 45.0%가 수도권에 있습니다. 메가MGC커피는 점포의 65.4%가 수도권에 있어 이보다 높고, 더벤티는 41.2%로 이보다 낮습니다.

4종이 모두 들어간 곳이 대부분이다

256개 시군구 중 193곳에 4개 브랜드가 모두 있습니다. 4개 브랜드가 하나도 없는 곳은 1곳(영양군 카페 48곳)입니다.

서로 얼마나 가까이 있나



각 브랜드 점포 중 100m 안에 4개 브랜드 중 다른 브랜드의 점포가 있는 비율입니다. 좌표 기준 직선 거리이고, 막대 끝은 100%입니다.

빽다방은 점포 1,794곳 중 1,022곳(57.0%)이 다른 브랜드 점포와 100m 안에 있습니다. 점포 수가 가장 많은 메가MGC커피는 38.8%입니다.

02 지역 분포

시도별 점포 수와 지역 1위

같은 4개 브랜드라도 지역에 따라 비중과 순위가 달라집니다. 초록색 숫자가 그 지역에서 점포가 가장 많은 브랜드입니다.

시도	카페	4종 점포	비중	메가MGC커피	컴포즈커피	빽다방	더벤티
경기	26,031	2,921	11.2%	**1,408**	784	455	274
서울	21,996	2,012	9.1%	**1,010**	489	356	157
전남광주	8,373	839	10.0%	**316**	283	89	151
경남	8,119	540	6.7%	100	**286**	52	102
경북	7,418	355	4.8%	90	89	50	**126**
부산	7,071	506	7.2%	130	**269**	37	70
인천	5,601	872	15.6%	**369**	254	144	105
대구	5,322	292	5.5%	**86**	72	78	56
충남	5,188	392	7.6%	**165**	98	99	30
강원	5,088	324	6.4%	**126**	109	56	33
전북	4,778	367	7.7%	102	69	**115**	81
충북	4,060	275	6.8%	**148**	54	50	23
대전	3,732	325	8.7%	112	66	**123**	24
제주	2,980	172	5.8%	50	43	**52**	27
울산	2,464	130	5.3%	24	**59**	8	39
세종	844	73	8.6%	27	13	**30**	3

기준: 2026-09-30. 비중은 그 시도의 카페 중 4개 브랜드 점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. 시도 이름과 구분은 자료에 적힌 대로입니다.

> 4개 브랜드 비중은 인천(15.6%)이 가장 높고 경북(4.8%)이 가장 낮습니다. 메가MGC커피가 1위가 아닌 시도는 8곳입니다.

03 시사점

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는가

조사 결과를 의뢰인의 다음 행동으로 연결해 기회, 위험, 우선순위로 정리합니다. 이 샘플은 카페 창업이나 출점을 검토하는 팀을 가정했습니다.

기회

- 4개 브랜드가 덜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. 카페가 300곳 이상인 시군구 153곳 중 4개 브랜드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 강화군 1.5%, 공주시 2.0%, 양평군 2.1%입니다. 다만 비중이 낮은 이유가 수요 때문인지 다른 사정 때문인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어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지역 1위가 전국 1위와 다른 시도가 8곳입니다. 가맹 브랜드를 고를 때 전국 순위보다 후보 지역의 순위를 먼저 볼 만합니다.

위험

- 4개 브랜드끼리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100m 안에 4개 브랜드 중 다른 브랜드의 점포가 있는 비율은 빽다방 57.0%, 메가MGC커피 38.8%이고 4개 브랜드 전체로는 43.4%입니다.
- 이미 비중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. 카페 300곳 이상 시군구 중 4개 브랜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계양구 18.4%, 인천 서해구 18.0%, 인천 미추홀구 17.8%입니다.

우선순위 제안

- 1순위: 후보 지역의 4개 브랜드 비중과 지역 1위 브랜드를 먼저 확인
- 2순위: 후보 입지 반경 100m 안의 같은 가격대 점포를 직접 세기
- 관찰: 이 자료는 분기마다 갱신되므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

출처와 한계

출처	기준 시점	비고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(상권)정보 (공공데이터포털)	2026-09-30	상호명, 업종, 주소, 좌표. 2026-11-11 내려받음

한계: 브랜드는 상호명으로 가려내서 표기가 다른 점포는 빠질 수 있고, 카페가 아닌 업종으로 등록된 점포는 세지 않았습니다. 같은 주소와 같은 이름으로 겹친 67건은 하나로 셌습니다. 개업과 폐업이 자료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어 본사가 발표하는 가맹점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. 매출, 임대료, 유동 인구, 인구 대비 점포 수는 이 샘플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.